

금호아시아나 3세 3명 금호산업 지분 확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오너 3세들이 계열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박세창 그룹 전략경영본부 이사를 비롯해 박철완, 박준경씨는 2월6일 금호산업 보통주 4만2900주를 주당 1만9400원에 각각 매입해 지분율을 0.08%씩 늘렸다고 2월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이사는 금호산업 지분율을 3.27%로 높였고 박철완씨와 박준경씨도 5.54%와 3.22%로 늘렸다.

금호산업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추가 매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7/02/14>